

□경희 국제의료협력회 97년도 하계 피지의료봉사단 동행취재기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곳에서 사랑사랑

남심자성이 파푸아뉴기니로부터 이주하는 멜라네시아(Melanesian) 카누(Ca-noe)의 길잡이가 된 것은 기원전 5백년경. 오늘날 남태평양의 마지막 낙원이라 불리며 전세계적 휴양지로 각광받는 피지공화국. 그 시원을 거슬러 가면 역사는 세계에서 태양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이 화산군도에 네덜란드 탐험가 아벨 테즈먼(1643)과 영국인 제임스 쿡(1774)의 흔적을 새겨넣고 있다. 1970년 당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 영국으로부터 완전독립까지엔 19세기 후반 치열한 중추간 전쟁에 휩싸인 따콤바우(Thakombau)추장이 1874년 영국에 통치권을 양양하는 사건이 앞서 자리 잡고 있다.

피지는 원시자연의 풍광이 개발로 훼손되지 않은 몇 안되는 곳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미너 브룩셀즈가 영화 '블루라인'을 찍었고,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다는 컴퓨터 황제 빌 게이츠의 신혼여행지, 갓 태어난 부부가 세계의 머리 위에 가장 먼저 솟아나는 태양을 보며 또 한번 특별한 결혼식을 올리는 신혼여행지로 부각되어 있기도 한 곳. '피지'는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친근한 휴가관광지 중 하나이다.

카니발리즘(Cannibalism 식인풍습)이 아직 남아 있는 파푸아뉴기니로부터 신변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는 답변에 의료봉사를 준비하던 '사단법인 경희 국제의료협력회(이하 국제의료협)'가 황급히 목격자를 바꿔 천신만고 끝에 성사시킨 것이 피지행이었다. '환상과 꿈의 섬', '남태평양의 심장', '원초적 순수의 3박자' 등등의 수사와 함께 일컬어지는 휴양지, 남태평양에서 경제사정이 가장 좋다는 빈국(피지는 세계 최빈국 7개(P7) 중의 하나이다), 피지로.

준급을 다투어 준비한 피지행이었던 만큼 이리저리 바쁘게 뛰어다닐 수밖에 없었던 '97경희국제 하계 피지의료봉사단'이 8월 12일 경희의료원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치루기까지 바쁘게 뛰어다녔던 회원들의 후일담도 무성했다.

대부분 개업의로 구성된 하계 의료봉사단은 의사로는 단장 박성수(가정의학), 임동구(안과), 송영학(정형외과), 부부의 사 두쌍 김희상(재활의학), 소혜경(산부인과), 반건호(신경정신과), 박관옥(소아과), 자원봉사 조길선, 송정민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되었다.

하계의료봉사에 참가한 의사들은 차일 피일 미루던 휴가를 해외의료봉사를 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의료봉사에 참가하는 해엔 따로 휴가를 가질 수 없기 때문. 그래서 김희상 선생과 반건호 선생의 네 아이들도 출지에 의료봉사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어렵게 성사된 피지의료봉사에 무엇보다도 큰 도움을 준 곳이 지난 91년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다. 비정부민간기구(NGO)의 국제 활동을 관장하는 KOICA의 적극적인 후원은 피지 현지에서도 큰 힘이 되었다.

남태평양으로 출항, 8월 16일 저녁 김포국제공항, KAL821 동그란 창으로 인구 천만의 요지경 서울이 훑혔다. 그리고 태평양 상공의 푸근한 어둠속 멀리 별들이 장막을 펼쳤다. 피지의료봉사는 현지 병원을 건설하는 등 커다란 성과를 이루어온 네팔의료봉사와는 다른 특별한 여름 휴가가 될 것이라는 설레임을 박성수(가정의학)단장은 조심스럽게 피력했다. 열 시간 고단한 비행 후 3시간 빠르게 뜬 해가 흐린 하늘 속에 제 빛을 숨긴 나디(Nadi) 국제공항. 빨라진 시간을 채 못미 따라가지 못해 약간의 피로가 입국신청서에 머물다. 곧게 솟아 오른 야자수, 이국감에서 오는 작은 긴장이 피로에 얹혀 가벼운 흥분을 자아낸다.

특별한 휴가의 정조는 진료장소인 난디병원으로 이동하는 미니버스로부터였다. 협제열차가 사탕수수를 버겁게 쌓아올리고 좁은 철로 위를 달리고 있다. 차창을 통해 한두사람이 지나가자 잠시 후 크리스찬 교회가 지나간다. 우리나라 한적한 지방 어느 구석마을이랄까. 야자수와 영어로 쓰여진 간판, 곱슬머리를 풍성하게 부풀린 피지인의 풍만한 몸매를 제외하면



말이다.

영국 식민지배 이후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에 노동자로 이주한 몸집이 작은 힌두니스탄인 전체 80만 피지 인구의 약 42%를 차지하고, 그 보다 많은 48%를 차지한다는 멜라네시아계열의 피지인(이들은 몸집이 대부분 한국인보다 크다), 그리고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의 모습을 다양한 종교사원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인구 약2만명이 거주한다는 나디는 우리의 행정개념으로 한다면 읍에 해당하는 Town이다. 도로 곳곳에 AIDS예방 표지판이 서 있는 낯선 풍경. 관광이 주요한 국민소득을 이루는 곳이라 에이즈의 안전지대가 되기는 어려웠던 모양이다. 국가의 주요산업이 사탕수수농업과 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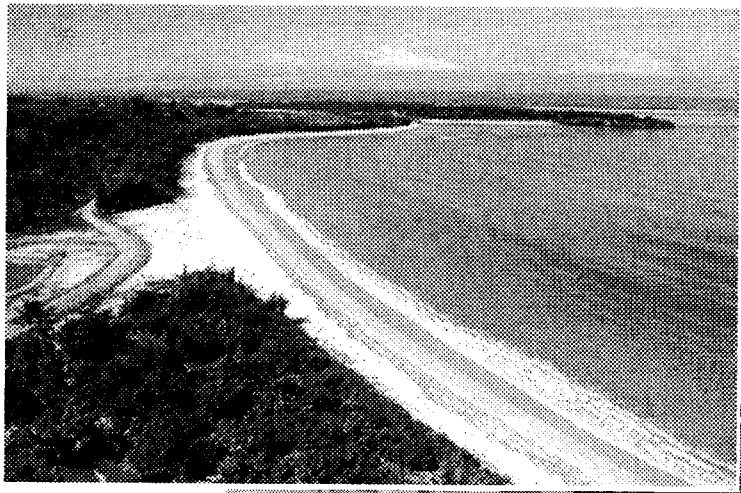
난디병원으로 도착하여 진료장소를 살펴본 후 박단장의 특별한 휴가의 꿈은 좋은 결실을 예고하는 듯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산호가 부서져 고운 백사장상을 이룬 코랄코스트는 마침 썰물이라 초록빛 바다를 원했던 봉사단 일행의 기대엔 어긋나드넓게 펼쳐진 죽은 산호의 바다와 황토색 바다.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호텔 종업원들은 대부분 몸집이 큰 피지인이었다.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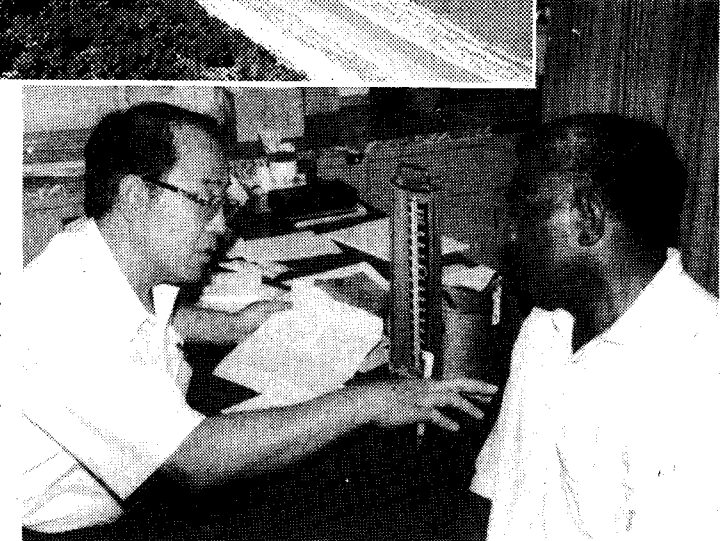
8월19일부터 시작된 진료에는 현지 KOICA(소장 송인엽)의 폭넓은 홍보로 환자가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단 하루만에 3백 50여명의 환자를 보아야 했던 의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의사소통이었다. 영어가 부족하기도 했지만, 환자들의 다수가 나이가 든 중장년층이라 영어가 공식언어라는 말과는 달리 피지언은 그들의 원주민어를, 인디언은 힌디어를 구사하는 실정이라 인디언 간호사와 피지언 간호사 그리고 통역을 도와 준 현지 교민 자녀들간의 이중통역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그만큼 진료가 더딜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첫날 진료환자수는 봉사단원들의 성실함을 도드라지게 보여준다.

3일간의 의료봉사를 통해 약 1천3백여명 가량의 환자를 진찰한 의사들은 그야말로 쉴 틈조차 없이 바쁘게 보냈다. 멀리 수도 수바(Suva)에서 찾아온 환자도 많았다. 몸집이 비만에 가까워 보이는 피지인들이 앓고 있는 병은 당뇨병도 사탕수수 원산지임이 반영된다. 우리가 긴 기후 탓으로 호흡기 질환 또한 많았다.

많은 한국 교민들은 세심한 지원을 아



하루에 평균 3백여명 정도의 환자를 진찰해야 했던 의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의사소통이었다. (좌측은 난디병원 관계자와 함께 한 사진 촬영 우측은 의사들의 진료 장면)



까지 앓아 봉사단은 비교적 큰 어려움없이 진료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것도 봉사활동의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현지 교민들의 지원은 봉사가 끝나는 날까지 아낌없이 이루어져, 우리민족의 하나됨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특히 92년에 피지에 와 현재 난디에 교회를 열고 있는 박영일목사(아가페 장로교회)는 매일 이른 아침 봉고를 물고와 봉사단을 숙소에서 난디병원까지 수송하고 숙소로 돌아오는 편의도 제공해, 말 해인 양(17)이 통역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실로 커다란 도움을 제공하였다.

약 3백20여개 무인도들을 거느린 두개의 큰 섬 비티레부과 바누아레부는 그 면적을 합치면 우리의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의 면적(약 1만8천 평방Km)이다. 우리나라엔 환상이 스민 신혼여행지로 잘 알려진 피지에는 KOICA가 지원하여 라키라키지역에 병원을 설립하고 한국인 간호사를 청년해외봉사단원으로 파견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피지인의 생활태도는 열대지방 특유의 여유가 서려있다. '볼라'(Bula, 인사말)라고 하면. 그들은 '볼라볼라'하고 해맑은 미소를 보여준다. 은행이라든가 버스정류장 등에서 길다란 줄을 서있으면서도 결코 조급해 하지 않는 그들 특유의 여유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소유등을 억압 받고 있는 인디언은 피지인들의 말을 듣기 좋아하지 않는다.

원주민 마을에 가면 피지인 전통의 메케(Meke)공연과 전통음식인 로보(Rovo)음식을 맛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관광객을 상대하다 보니 그들도 순수하지 않은 모습이다. 하지만 원주민 마을에서 만난 조(20)는 '한국은 매일 싸우지 않는다. 여기는 낙원이다'라고 당당히 말한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앓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아니었을까.

피지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 너무나 바빠 티타임(Tea-Time)도 없이 일하는 한국사람들의 모습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

<장영환 논설위원>



▲피지인의 생활태도는 열대지방 특유의 여유가 서려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문화를 관광문화로 발전시켰다.

□세계 최빈국 피지 속의 한국청년해외봉사단

'나눔과 섬김' 봉사정신으로 인류애 구현

제8기 해외청년자원봉사자(KOV) 송지원(37세 프로그래머)씨와 백인숙(34세 재봉기술자)씨를 피지주재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주선으로 만난 곳은 피지의 수도 수바(Suva)에 있는 교육부 청사였다. 피지인의 커다란 몸집 사이를 휘젓고 나온 이들은 모습은 공무원 대부분을 이루는 멜라네시아인의 특유의 검은 피부사이에서 쉽게 시선을 잡아 당긴다. 송지원씨는 교육부 전산시스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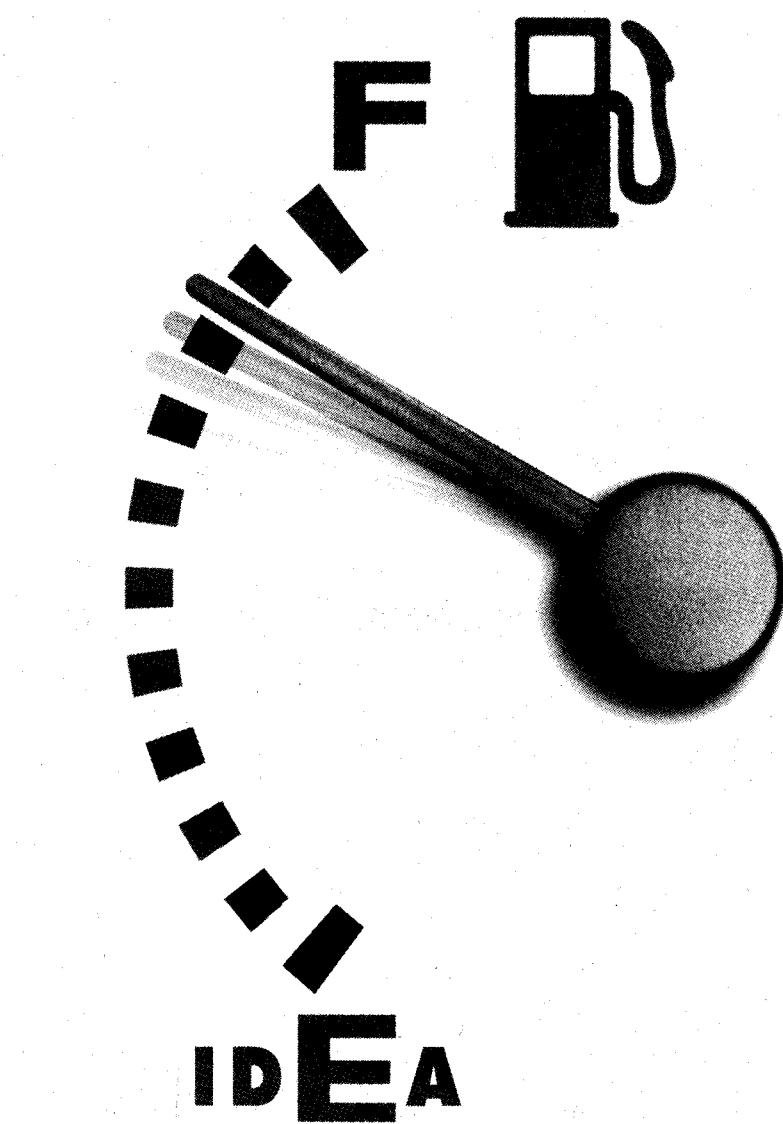
과 간단한 운용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백인숙씨는 재봉기술 교육을 담당한다. 이들은 97년 시험을 거쳐 선발된 1백30여명이라는 KOV의 일원들이다. 송지원씨는 월 4백달러의 현지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다는 질문에 "현지 생활비를 보조받는 이외의 일체의 급여는 없다. 그래도 그돈을 아껴서 유럽여행 가는 사람도 있다."고 대답한다. 의료봉사 현장인 난디병원에 지원을 나온 권경애(28세 간호사)는 "처음엔 정말 적응하

기 힘들었으나 현재는 처음처럼 항수병이 심하지 않다"며, "한국인 없는 라키라키 병원에서의 생활에는 피지인의 낙천적인 성격과 친근감이 도움이 된다."고 대답한다. 외와 나이가 적지 않은 이 청년(?)들을 이곳 피지에 붙잡아 두는 것은 무임가. 현재 피지에는 8명의 KOV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최소 2년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정부는 1989년 4월 한국청년해외봉사단 창설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준비작업을 거쳐 1990년 3월 50명의 1기 단원이 선발됐으며 이것이 한국국제협력단의 태동이었다. 협력단은 개발도상국을 위주로 한 특정 협력대상국과의 우호협력과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협력단은 정부 각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실시돼 온 개발도상국 관련 협력사업을 일원화 전달해 해 체계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했다. 협력단의 주요 사업은 △기자재공여 △프로젝트사업 △개발조사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국제협력요원 파견 △의료단 파견 △NGO지원사업 등이다.

<김용운 기자>



"아이디어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98 자동차 설계공모전

기능개선, 시스템 개선, 구조 개선 등 자동차에 관한 다양한하고
싱싱한 아이디어로 당신의 뜨거운 열기를 마음껏 펼치십시오.

▶응모자격

●98년 10월 기준 국내 4년제 이공계 대학(원) 재학생 ●참가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작은 2인까지 가능

▶응모분야

●자동차 전반의 독창적 아이디어 작품 (기능개선, 시스템개선 등)
●도출된 아이디어는 공학적으로 설명 가능하며, 실제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함.
●국내외 특허출원 및 유사대회에 발표된 내용과 단순 디자인 변경은 제외

▶시상 및 특징

구분	팀수	상금 및 부상
대상	1	장학금 500만원, 상장 및 상패
우수상	2	장학금 250만원, 상장 및 상패
장려상	7	장학금 100만원, 상장 및 상패

*우수상 이상 수상자는 일사후 해외유학 우선 추천 및 해외모토쇼 참가 *수상자 전원 일사후 특전 부여

▶응모일정

●아이디어 개발계획서 접수: 97년 11월 1일 ~ 98년 1월 31일
●서류심사 및 본선진출팀 확정: 98년 2월 28일 (개발동료 예정)
●제안 아이디어 실물제작: 98년 3월 10일 ~ 9월 15일 ●결선심사 및 시상: 98년 10월 2일

▶응모방법

●아이디어 개발계획서 10매 내외 (요약서 1매 별도 제출) ●참가신청서 및 추천서 각 1매
●제출양식은 각 학교 기계관련학과 사무실에 비치된 응모요강 참조

▶작품제작지원

●본선진출 10개팀에 작업지원금 300만원 및 차량, 필요부품 지원, 기술지도팀 운영 및 방문지도

▶접수 및 문의

●응모서류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98년 1월 31일 도착일까지 인정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장덕리 772-1 현대자동차(주) 연구개발기획팀 자동차 설계공모전 추진사무국 (우446-850)
●Tel 0339-369-5663/5664, Fax 0339-369-5668(E-mail hyunjong@www.hyundai-motor.com)

▶기타

●상금요강은 현대자동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안내함. (http://www.hyundai-motor.com)
●제출된 계획서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본대회 참가로 발생하는 유무형의 산업재산권은 당사에 귀속함.
●제작된 아이디어 작품(차량)은 시상후 소속학교에 기증함.

좋은 환경, 좋은 차

 현대자동차